

#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다운타운(下町)<sup>ダウンタウン</sup>』론 -일본의 전후(戰後) 결혼생활 변화와 여성의 자립-

이상복\*  
sblee@sy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4. 전후(戰後) 여성의 자립 |
| 2. 전후(戰後) 하야시 후미코의 작품 양상 | 5. 결론            |
| 3. 전후(戰後) 결혼생활의 변화       |                  |

主題語: 다운타운(Downtown), 여성의 자립(independence of women), 전쟁(war), 반전의식(anti-war consciousness), 인습(conventions)

## 1. 서론

『다운타운(下町)<sup>1)</sup>』의 여 주인공 리요(りよ:30세)는 6년 전 출정(出征)한 남편 류지(隆次)가 전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들 류키치(留吉:8세)를 데리고 시즈오카(静岡)에서 도쿄(東京)로 와서 행상을 시작한다. 추운 겨울에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 쓰루이시 요시오(鶴石芳雄:29세, 이하 ‘쓰루이시’)와 가까워지게 된다. 리요의 힘든 생활을 알게 된 쓰루이시는 리요와 류키치를 즐겁게 해 주려고 아사쿠사(浅草)로 놀러 간다. 그러나 돌아 올 때쯤 비가 너무 많이 와 여관에 머물면서 두 사람은 연인관계가 된다. 이런 일이 있고 이틀 후, 리요는 쓰루이시가 철재 운송 중에 트럭과 함께 강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리요는 한 순간 상실감에 빠지지만, 다시 예전처럼 행상을 시작한다. 이런 도쿄 ‘시타마치<sup>2)</sup>에서의 10여 일간의생활이 리요와 쓰루이시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 삼육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1) 『다운타운(下町)』은 1949년 4월 『별책소설신초(別冊小説新潮)』에 발표되었다.

표제에 영어 요미가나를 붙인 것은 도쿄의 서민동네(시타마치)가 아니고 세계 속 어디에서나 있는 서민이 사는 동네라는 의미이다. 今川英子(2004) 『主要著作解説』 『芸芸別冊』 河出書房新社, p.207

2) 본문에서 도쿄로 한정된 지역을 나타낼 때는 ‘시타마치’로 표기함.

선행연구에서, 이마가와 히데코(今川英子)는 “리요의 불행을 그려내면서도 동시에 그와 같은 많은 가엾은 여자들이 슬픔을 견디며 늠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여정 넘치는 작품”<sup>3)</sup>이라고 평하고 있다. 요나하 게이코(與那覇恵子)는 “하야시 후미코(이하 ‘후미코’로 약칭)의 허무사상”이 그려져 있지만, 리요를 통해 아직 “희망”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4)</sup>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리요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후미코 자신의 “전후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sup>5)</sup> 이렇게 전후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혼란 속에서 “서민의 어두운 생활상”<sup>6)</sup>과 “여자 생명의 강인함”<sup>7)</sup>을 느낄 수 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후루카와 유카(古川裕佳)는 “여자와 남자의 ‘전장(戰場)’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하룻밤의 ‘간통’을 매개로 그린 작품”<sup>8)</sup>이라는 평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있는 패전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어두운 생활상에 중점을 두면서, 전쟁으로 인해 변한 가정 모습과 리요의 자립 의지를 과정을 분석한다. 그 방법으로 우선, 후미코의 전후 작품양상을 살펴보고, 주인공 리요와 쓰루이시의 ‘시타마치’에서의 생활과 갑작스런 쓰루이시의 죽음으로 인한 리요의 의식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전후(戰後) 후미코의 작품 양상(樣相)

후미코는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걸쳐 특파원으로 전장(戰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여, 전시 중에는 정부에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 작가<sup>9)</sup>로 알려졌다.

3) 今川英子(2004) 「主要著作解説」『文芸別冊』河出書房新社、p.207

4) 與那覇恵子(1998) 『『下町』-“運の悪い人々”の共生空間-』『国文学解釈と鑑賞』63(2)至文堂、p.140

5) 川本三郎(2003) 「明るい戦後の中の暗い戦争」『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p.311

6) 磯貝英夫(1986) 「評傳」『新潮日本文學 アルバム 林芙美子』新潮社、p.87

7) 西川長夫(1988) 『『下町』あるいは林芙美子における戦争未亡人について』『日本の戦後小説』岩波書店、p.82

8) 古川裕佳(2007) 「<戰場>の<姦通>-林芙美子『下町』」『国文学論考』(43) 都留文科大学國語國文學會、p.38

9) 후미코는 1937년 12월 13일 남경(南京) 함락에 즈음하여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특파원으로 현지로 파견, 1938년 1월에 귀국하여 9월에 내각정보부에 의해 “매디어를 이용”하여 국민의 전의고양(戰意高揚)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펜부대(ペン部隊)”의 일원으로 전장(戰場)으로 가게 된다. 1941년 9월에 만주 국경 각지를 위문하였으며, 1942년 10월에는 보도반원으로 남방(南方)에 파견되기도 했다. 귀국 후에도 전국각지에서 중군보고 강연을 하며, 전쟁 중의 전지위문을 비롯한 국책문학을 집필하기도 하여 군국주의의 선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후미코처럼 여성 작가가 전쟁의 협력자가 되거나 주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와타나베 스미코는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이 인정”받기 위해, “격전을 벌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0)</sup>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 역시 후미코가 “전적으로 전의(戰意) 고양을 주창한 것은 아니며, 전선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을 안쓰럽게 여겨 전쟁이라는 숙명적인 것에 휘둘러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고 전장(戰場)으로 나갔다고 적고 있다.<sup>11)</sup> 또한, 이에모리 요시코(家森善子)도 “후미코가 국가론자(國家論者)를 비난하고 실제로 전지(戰地)에서 투쟁하는 군대의 모습을 찬미했지만, 아울러 천황비판으로도 볼 수 있는 발언도 하고 있어 군인들에 대한 애절함”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적고 있다.<sup>12)</sup> 이렇게 후미코가 여성작가로서의 사회적 지위확보나, 군인들을 직접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전쟁에 동참한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후미코도 1941년 실존의 여배우를 모델로 한 『여우기(女優記)』와 『방랑기(放浪記)』, 『울보 소승(泣虫小僧)』 등이 국민의 전의 양양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발매금지 조치를 당한다.<sup>13)</sup> 또한, 그해 12월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돌입하게 되어 후미코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문예총후운동(文藝統後運動)<sup>14)</sup>이나 보도를 위해 내몰려 자신들이 쓰고 싶은 문학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후미코는 1945년 10월 도쿄로 상경하기 전까지 신슈(信州, 나가노현)에서 작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전후 일본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어 온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자, 반전(反戰) 분위기와 함께 저널리즘 부활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후미코도 소개지(疏開地)에서 보고 느낀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복원병, 전쟁미망인”<sup>15)</sup> 들의 슬픔과 “패전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sup>16)</sup>을 그린 “반전 작품”<sup>17)</sup>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후 후미코가 현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본다. 우선 전후 최초의 작품으로 잘못된 전사 통지서에 의해 빚어진 농촌의 비극을 그린 작품 『눈보라(吹雪)』(1946년1월)에서는 남편의 전사 통지를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던 남자와 3년 만에 재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 돌아와 적십자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 渡辺澄子(2000) 『戦争と女性』『戦時下の文学』インパクト出版社、p.119  
 11) 川本三郎(2003) 『視点の低さ』『生誕100年記念 林芙美子展』アートプランニングレイ、p.51  
 12) 家森善子(2006) 『林芙美子-戦争迎合作家の反戦感情-』『國文目白』45 日本女子大學國語國文學會、p.133  
 13) 今川英子(2003) 『林芙美子の作家的成熟』『林芙美子記念館圖録』(財)新宿生涯學習財團、p.427  
 14) 문예총후운동(文藝統後運動:ぶんげいじゅうごうんどう):1940년 기쿠치 간(菊池寛)에 의해 설립. 문학자가 좌익운동을 하는 조직으로 전국각지를 돌며 강연했다.  
 15) 川本三郎(2003) 『視点の低さ』전계서, p.51  
 16) 今川英子(1999) 『作家ガイド林芙美子』『女性作家シリーズ』2角川書店、p.474  
 17) 板垣直子(1965) 『暗い作品の系列をたどって』『林芙美子の生涯うず潮の人生』大和書房、p.177

눈보라가 치는 날 전 남편에게 사죄하러 간다는 내용이다. 연이은 『비(雨)』(1946년 2월) 역시 잘못 전달된 전사통보로 남편이 사망했다고 믿고 집안에서 시동생과 재혼 시킨다. 살아서 돌아온 남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의 출현으로 온가족이 불행해 질 것을 염려하여 친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친구 집이 없어져버려, 친구를 만나지도 못한 복원병은 억수 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헤맨다. 어렵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복원병의 쓸쓸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두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또한, 후미코가 여성의 자아확립과 자립의 의지를 표출시키고자 하는 작품 『소용돌이치는 조수(うず潮)』<sup>18)</sup>에서는 여주인공 지요코(千代子, 25세)의 남편이 오키나와(沖繩)에서 전사하자 5살 된 아들과 살아 가기위해 요리점에서 일한다. 이때 만난 남자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전쟁미망인에게 정절만을 강요하는 사회 인습에 대한 반발을 그려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운타운(下町)』은 『소용돌이치는 조수(うず潮)』보다 2년 후에 발표한 작품으로, 남성부재 가정의 가장역할을 해야만 하는 리요의 자립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 후미코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나, 전선(戰線)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이나 모두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로 보고 있다. 또한, 『소용돌이치는 조수(うず潮)』에서는 여성의 의지에 따른 재혼을, 『다운타운(下町)』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사랑과 자립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후미코는 작품이나 평론을 통하여,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전쟁미망인에 대해 세상에서 구도덕으로 속박하려는 풍조(風潮)”나 “사회의 어떠한 편견”<sup>19)</sup>에도 맞서서 피해 여성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현실적인 해결”<sup>20)</sup>방안 모색에 관심을 보였다.

전후, 후미코는 작품에서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실태로 반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특히 남성 부재 가정에서 여성이 짊어져야만 하는 자녀 문제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의 저변에 움트고 있는 여성의 집념”<sup>21)</sup>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후미코의 전후 작품 양상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어두운 서민의 생활 속에서도 특히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うず潮」는 1947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일신문(毎日新聞)」에 연재. 1948년 2월에 신조사(新潮社)에서 간행

19) 今川英子(2003), 전제서, p.55

20) 川井美智子(1973) 「林芙美子-女の生活の場について-」 『女流文藝研究』南窓社, p.214

21) 상제서, p.217

### 3. 전후(戰後) 결혼생활의 변화

『다운타운』의 여주인공 리요는 행상을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은 추운 겨울날, 매서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공사장 같은 널빤지로 된 울타리를 돌아 녹슨 철재가 쌓여 있는 인쪽을 들여다보니, 유리문 안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오두막집”이 보였다. 리요는 집안에 있는 남자가 “인품이 좋은 사람” 같아 용기를 내어 차를 사라고 권하며 접근했다.

“시즈오카의 차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두운 봉당(封堂)에서는 화로에 장작을 태우고, 철봉 발판을 걸친 위에 큰 주전자가 없어져 있었다.

“차?”

“네, 시즈오카의 차예요...”

리요는 미소를 띠며, 서둘러 배낭을 내려놓았다. 머리띠를 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당의 의자로 갔다. 리요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불을 쬐고 싶어,

“계속 걷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조금만 불을 쬐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머뭇거리며 말했다.<sup>22)</sup>

이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된다. 쓰루이시가 본 리요는 “겉모습 따위는 개의치 않아하는 차림”이지만, “의외로 피부색이 흰 예쁜 여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쓰루이시는 리요가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한다. 그뿐 만아니라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으로 연어를 밥 위에 올려 주기도 한다. 뜻밖의 친절에 당황해하는 리요에게 쓰루이시는 자신도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복원병(復原兵)이라고 밝힌다.

22) 본문 인용은 『下町』(1971, 『新潮日本文學』22 新潮社)에 따랐다. 괄호 안의 숫자는 본문의 페이지를 나타냄. 이하 동일.

「静岡のお茶はいりませんか……」と小さい声で聞いてみた。暗い土間では、七輪に薪を燃やして、鉄棒の渡しをかけた上に大きいやかんが乗つかつてゐた。「お茶?」「はい、静岡のお茶なんですけどねえ……」りよは、微笑しながら、さつさとリュックを降ろしかけた。鉢巻の男は何も云はないで、土間の腰掛に行つた。りよは、勢よく燃える火に、ほんのしばらくでもあたらせて貰ひたかつたので、「随分、歩いたんですけど、とつても寒くて……少し、あたらせて下さいませんか?」とおつおづと云つてみた。(p.512)

“아! 당신도 복원병이세요? 그래도 용케 잘 살아 돌아오셨군요.”

“겨우 죽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왔다고나 할까…”

리요는 도시락통을 닫으면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평범한 남자처럼 느껴져 리요는 마음 편히 말을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23)

리요는 쓰루이시가 남편과 같은 시베리아에 있었다는 것도 낯설지 않았으며, 류키치를 데리고 갔을 때도 매우 반갑게 맞아주며 데리고 나가 과자를 사주기도 하는 친절함에 마음이 갔다. 남편 이외는 30살이 된 현재까지 다른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없었던 리요는 쓰루이시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리요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도하고, 장사도 종류를 조금씩 늘려가며 어느 정도 도쿄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만나지 7, 8일 정도 되었을 때, 쓰루이시는 리요와 류키치를 데리고 아사쿠사(淺草)로 놀러 갔다. 그러나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찻집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으면서, 리요는 쓰루이시에게 영화도 보고 여관 같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싶다고 말한다. 비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자, 영화관에서부터 업혀 있다 잠들어 버린 류키치를 업은 채 쓰루이시는 리요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간다.

리요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보다는 쓰루이시와의 교제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더 컸다. 남편이 출정을 나간 이후 한 번도 기뻐던 날이 없었던 리요에게 있어 쓰루이시는 새로운 세계로의 희망이었다.

6년간 류지(隆次)가 출정하고 나서 리요는 마음이 설레었던 행복은 한 번도 없었다. 세월의 속도는 리요 생활의 외측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24)

리요는 생사를 알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아들과 함께 살고, 쓰루이시는 3년 만에 돌아왔지만, 부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려 혼자서 살고 있다. 쓰루이시는 6년이나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리요에게 “대단하시오 여자가 모두 질척질척 못한 것만은 아니군요”라며 자신의 전 부인과 비교하며 칭찬까지 한다. 물론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쓰루이시는 누나가 전쟁미망인으로 혼자서 재봉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리요의 힘든 삶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23) 「まア! 貴方も復員のかたなですか? でも、よく丈夫で、戻つて来られましたんですね?」「どうやら死にもセンで、日本へ戻れたと云ふもンさ……」りよは弁当箱をしまひながら、つくづくと男の顔を見た。平凡の男のやうに感じられるだけに、りよは氣安く話が出来、居心地がよかつた。(p.514)

24) 六年間と云ふもの、隆次が出征してからは、りよは飛び立つ思ひの幸福は一度もなかつた。歲月の速度は、りよの生活の外側で、何の感興もなく流れてゐるのだ。(p.514)

그러나 리요는 남편이 떠난 후 외로운 생활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쓰루이시가 이상하게도 “10년이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져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 졌다.

“쓰루이시씨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시골, 어디?”

“후쿠오카.”

“누나는 뭐하세요?”

“재봉틀 한대로 양복 만드는 일을 하며, 리요처럼 혼자서 아이 두 명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중국에서 벌써 전사했대요...”

쓰루이시는 조금 기분이 잡착해졌는지, 목소리도 차분해졌다.<sup>25)</sup>

또한, 리요는 쓰루이시의 여자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 “여자관계를 가져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쓰루이시는 “당연히 있었다”고 대답한다. 이에 리요는 “남자는 좋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리요는 인습에 따라 남편을 기다려 왔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재인식하게 된다.

류키치가 잠들고 두 사람만 있게 되었을 때, 리요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은 행복에 가슴이 벅차올라 “오랫동안 닫혀 있던 인간의 고독이 피리처럼 후 하고 소리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텍스트에는 쓰루이시의 감정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리요의 이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갑자기 자제력을 잃고 다가온다.

“안 되는 건가.....”

리요는 이불 속에서 다리를 쪽 뻗고 있었다. 심한 귀 울음이 있었다.

“안 돼요.....저는 시베리아의 남편을 생각하고 있어요.” 리요는 생각지도 않았던 나쁜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sup>26)</sup>

그러나 리요로부터 시베리아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 접근하지 못한

25) 「鶴石さん、お父さんやお母さんは.....」 「田舎にゐるよ」「田舎は、どこ?」「福岡だよ」「お姉さんは何してるの?」「おりよさんみてえに独りで、子供二人そだててる。ミシン一台持って洋裁やつてるよ。亭主は華中で早く戦死したんだ.....」 鶴石は、少しばかり気が持ちなほつたのか、話声もおだやかにこつた。(p.518)

26) 「駄目か.....」 りよは蒲團の中で脚をつづつてゐた。ひどい耳鳴りがした。「いけないわ.....私シベリアの事を考へるのよ」 りよは思ひもかけない、悪い事を云つたやうな気がした。(p.519)

다. 이런 쓰루이시를 보며, 리요도 스스로 ‘내부의 윤리’가 용납하지 않아 망설이다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쓰루이시를 받아들이고 만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와다 요시에(和田芳惠)는 후미코가 “불륜이라거나 윤리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그리지 않고 긍정적”<sup>27)</sup>으로 그려내고 있다. 후루카와 유카(古川裕佳)는 “서로가 서로의 전장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리요는 쓰루이시의 본체와 같은 일=간통 할 것을 결의 한다.”<sup>28)</sup>고 적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간통”이나 “불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전쟁이 끝났어도 살아 있다는 통보도, 전사 통보도 없는 연락 두절 상태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객관적인 윤리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전후, 일본 사회는 전쟁터에 나간 복원병이 돌아오면 자신의 부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복원병은 다시 홀로 남겨진 남의 부인과 인연을 맺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남녀 모두 전쟁으로 인한 피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작가는 리요가 기다림에 지쳐 새로운 사랑에 갈급해 가는 감정이입 과정에 중점을 두고, 쓰루이시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작가가 전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입장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 4. 전후(戰後) 여성의 자립

리요는 아사쿠사(淺草)에서의 일이 있고 난후 이틀째 되는 날, 류키치와 함께 쓰루이시를 찾아 갔지만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듣게 된다.

“뭐야, 아줌마……”눈이 작은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쓰루이시씨 계세요?”

“쓰루이시, 어젯밤 죽었어요.”

“아!” 리요는 아! 하고 말할 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을린 가미다나(神棚)에 불빛이 올라와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쓰루이시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쓰루이시가 철재를 실은 트럭을 타고 오미야에서 오는

27) 和田芳惠(1968) 「感想」『日本短篇文學全集』39 筑摩書房、p.275

28) 古川裕佳(2007), 전게서, p.44



길에 어떤 다리 위에서 트럭이 강으로 완전히 거꾸로 떨어져, 운전자와 함께 사망했다고 알려 주었다. 29)

갑작스러운 쓰루이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리요는 가까스로 얻은 행복이 무너져버린 “운명의 무정함”<sup>30)</sup>을 느끼며 당황해 한다. 리요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다시 쓰루이시가 살고 있던 요쓰기(四ツ木)의 공사장 오두막을 찾아 가보지만, 주인은 이미 다른 남자로 바뀌어 있었다.

황당하지만 쓰루이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리요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만약 자신이 임신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하는 걱정을 한다.

혹시, 리요는 쓰루이시의 아이를 갖게 되면,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시베리아에서 언젠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알게 되면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sup>31)</sup>

리요는 6년이나 남편을 기다린 보람도 없이, 10여 일 만에 생긴 일로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리요는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을 때, “시베리아에 있는 남편의 모습보다도 짙은 눈썹의 쓰루이시의 모습이 확실히” 떠오르며, 그와의 추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리요는 그만큼 쓰루이시를 사랑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하게 주위는 밝게 햇살이 비치고, 강바닥의 마른 돌 양쪽에는 피어오르는 듯한 푸른 풀이 눈에 들어왔다. 리요의 양심은 의외로 상처받지 않았다. 쓰루이시를 알게 된 일을 나쁘다고 말할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sup>32)</sup>

---

29) 「何だい、をばさん……」眼の小さい男が振り返って尋ねた。「鶴石さん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鶴さん、昨夜、死んちやつたよツ」「まア!」りよは、まア!と云つたきり声も出なかつた。煤ぼけた神棚にお光あかりがあがつてゐるのも妙だと思つたけれども、まさか鶴石が死んだ為とは思はなかつた。鶴石が、鉄材をのつけたトラックに乗つて、大宮からの帰り、何とかと云ふ橋の上から、トラックが河へまつさかさまに落ちて、運転手もろとも死んでしまつたのだと教へてくれた。(p.519)

30) 板垣直子(1965), 전계서, p.184

31) りよは鶴石の子供をもしも、みごもるやうな事があつたら、生きてはゐられないやうな気がして来た。シベリアから何時かは良人は戻つて来てくれるだらうけれども、もしもの事があつたら死ぬより仕方がないやうにも考へられて来る。(p.521)

32) 珍しく四圍は明るい陽射しで、河底の乾いた堤の両側には、燃えるやうな青草が眼に沁みた。りよの良心は案外傷つかなかつた。鶴石を知つた事を悪いと云つた気は少しもなかつた。(p.521)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는 리요가 쓰루이시와의 교재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전전(戰前)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고, 전후(戰後)에도 꽤 용기가 필요한 말”<sup>33)</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후미코는 작품 속에서 “작가의 대변에 의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항의”<sup>34)</sup>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

리요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마음먹고 주위를 보자, 메말라 버린 강 양쪽 제방에 핀 푸른 풀처럼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생겼다.

처음 리요가 도쿄로 상경할 때부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강물이 말라버린 제방의 콘크리트 조각 옆에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고양이의 시체”를 보며, 황량한 도쿄의 모습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리요는 새로운 출발의 의지로 “짐을 들쳐 메고 역 쪽”으로 행상을 다시 시작한다.

행상을 해보고, 차가 팔리지 않으면 시미즈(清水)<sup>35)</sup>에 돌아갈 생각으로 상경했던 것이지만, 리요는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도쿄가 좋다고 생각했고, 객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도쿄가 좋다.

리요는 제방의 푸른 풀 위에 앉았다. 눈 아래의 콘크리트 조각 옆에 고양이의 시체가 맞은편 쪽으로 버려져 있었다. 리요는 곧 일어나 어깨에 짐을 들쳐 메고 역 쪽으로 걸어갔다.<sup>36)</sup>

리요가 시즈오카(시미즈)로 돌아가지 않고 도쿄에 살겠다는 것은 타의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리요에게 있어, 쓰루이시와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한 도쿄의 ‘시타마치’는 어두움, 고난, 가난 등의 부정적인 현실만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회 저변(底邊)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받아 주는 곳”<sup>37)</sup>이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성이 일을 하며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남성부재 가정의 생활 영위를 위한 수단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쟁은 공교롭게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sup>38)</sup>시

33) 西川長夫(1988), 전계서, p.83

34) 林芙美子「著者の言葉」『林芙美子全集』17 新潮社, p.274

35) 시미즈(清水): 시미즈구(清水区)가 시즈오카시(静岡市)에 속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편리상 시즈오카로 표기한다.

36) 行商をしてみても、茶が売れなかつたら清水へ帰るつもりで、上京して来たのだけれども、りよは、商売があつても、なくても東京がいゝと思つたし、のたれ死しても東京の方がいまはいゝのだ。りよは堤の青草の上に腰を降ろした。眼の下の、コンクリートのかけらのそばに、仔猫の死骸が向うむきに捨ててあつた。りよはすぐ立つて肩の荷をゆすぶりあげて駅の方へ歩いた。(p.521)

37) 與那覇恵子(1998), 전계서, p.140

38) 渡辺澄子(2000) 「戦時下の女性文學-女自らが問う戦争責任-大東文化大學人文科學研究所主催シンポジウムと講演」大東文化大學人文科學研究所, p.65

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통념에 대한 투쟁임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체 형성의 작업”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남자의 차별적인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sup>39)</sup>하는 것으로 활성화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습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도든 사회진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이은 쓰루이시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리요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며 스스로 자립해야만 했다. 리요는 행상한지 얼마 안 되어 자신감이 없을 때 쓰루이시를 만나 정신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매월 2000엔” 씩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리요는 이제 힘들게 행상을 하지 않아도 될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쓰루이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무 후원자도 없이 다시 행상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지만, 여자들이 생활전선에서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을 딛고 다시 새 출발의 의지를 보인다.

“시즈오카의 차는 필요 없습니까.

“네, 얼마예요? 비싸지요?”리요가 문을 열자, 양말을 꿰매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2-3명의 여자가 나를 봤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빈 통을 찾고 있으니까요”하고, 그 사이 몸집이 작은 여자가 사라졌다. 나와 비슷한 것 같은 여자들이 부지런히 양말을 꿰매고 있다. 때로는 바느질이 빛났다.<sup>40)</sup>

그곳에서 리요는 자신과 같은 여자들이 “부지런히 양말을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느질이 빛”나 보이기 시작했다. 리요의 힘든 행상 모습과 버선 공장의 많은 여자들의 일하는 모습에서 남성 부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자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려져 있다.

쓰루이시의 죽음에 대해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리요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리요를 벌하듯이 갑자기 남자를 사고로 죽게 했다.”<sup>41)</sup> 요나하 게이코(與那覇恵子)는 “리요와의 생활을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sup>42)</sup>이라고 적고 있다. 텍스트에도 쓰루이시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39) 菅孝行(1984) 「家族の危機と女性」『女の自立・男の自立』毎日新聞社, p.163

40) 「静岡のお茶はいりませんか?」「さうね、いくら? 高いのでせう?」りよが格子を開けると、足袋の芯縫ひを内職にしてゐるらしく、二三人の女がこつちを向いた。「一寸待つて下さいな。今空鐘探してみますからね」と、次の間へ小柄な女が消えて行つた。自分と同じやうな女達がせつせと足袋底を縫つてゐる。時々針が光つた。(p.521)

41) 川本三郎(2003) 「明るい戦後の中の暗い戦争」, 전게서, p.312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리요가 남성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습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리요가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의 자립을 위해 도쿄로 와서 행상을 시작했는데, 쓰루이시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쓰루이시의 지원 없이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리요의 모습을 기대하며 여성의 자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전후 일본의 반전(反戰) 분위기 확산과 저널리즘의 부활로 작가 활동을 재개한 후미코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슬픔,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작품 속에서 사회문제로 대두시키기 시작했다.

『다운타운(下町)』에는, 전후(戰後) 전장(戰場)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정절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립의지를 추구해 나가는 여성의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리요는 남편을 기다리는 정신적인 고달픔과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 류키치를 데리고 도쿄로 와서 차 행상을 시작한다. 이때 만난 복원병 쓰루이시가 따뜻하기 더해주자 남편보다 더 편안한 상대로 느낀다. 쓰루이시는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부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 헤어졌으며, 누나도 전쟁미망인으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 누구보다 리요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리요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쓰루이시는 리요와 류키치를 데리고 아시쿠사(淺草)로 놀러 간다. 그러나 돌아올 때 비가 많이 와서 함께 여관에 함께 머물게 되면서, 이성간의 사랑으로 변하고 만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쓰루이시는 리요에 대한 동정심에서 출발하지만, 리요는 처음부터 쓰루이시를 남편을 대신하는 상대로 생각하고 접근한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쓰루이시 보다 리요의 감정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 스스로 “구도덕으로 속박하려는 풍조(風潮)”와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합에서, 전쟁터에 나간 복원병이 돌아오면 자신의 부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복원병은 다시 홀로 남겨진 남의 부인과 인연을 맺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전쟁의 피해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전쟁이라

42) 與那覇恵子(1998), 전계서, p.140

는 높은 인간을 벌레”로 만든다며, “다시는 전쟁터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쓰루이시를 통해 작가의 반전의식도 함께 표방하고 있다.

또한, 리요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쓰루이시가 이틀 만에 돌연사(突然死)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리요가 쓰루이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야한다는 작가의 원망(願望)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쿄의 ‘시타마치’는 리요에게 있어 쓰루이시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며,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여성들이 일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리요는 좌절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는 도쿄의 ‘시타마치’에서 자립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 【參考文獻】

- 家森善子(2006) 「林芙美子-戰争迎合作家の反戦感情-」『國文目白』45 日本女子大學國語國文學會, pp.128-145
- 磯貝英夫(1986) 「評傳」『新潮日本文學 アルバム 林芙美子』新潮社, pp.2-96
- 板垣直子(1965) 「暗い作品の系列をたどって」『林芙美子の生涯うず潮の人生』大和書房, pp.166-193
- 今川英子(2004) 「主要著作解説」『文芸別冊』河出書房新社, pp.204-211
- \_\_\_\_\_ (2003) 「林芙美子の作家的成熟」『林芙美子記念館圖録』(財)新宿生涯學習財團, pp.54-57
- \_\_\_\_\_ (1999) 「作家ガイド林芙美子」『女性作家シリーズ』2角川書店, pp.472-475
- 川井美智子(1973) 「林芙美子-女の生活の場について-」『女流文藝研究』南窓社, pp.209-218
- 川本三郎(2003) 「視點の低さ」『生誕100年記念 林芙美子展』アートプランニングレイ, p.51
- \_\_\_\_\_ (2003) 「明るい戦後の中の暗い戦争」『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 pp.307-323
- 菅孝行(1984) 「家族の危機と女性」『女の自立男の自立』毎日新聞社, pp.152-164
- 西川長夫(1988) 「『下町』あるいは林芙美子における戦争未亡人について」『日本の戦後小説』岩波書店, pp.75-84
- 福田清人・遠藤充彦(1966) 「戦後の混乱の中から」『人と作品 林芙美子』15 清水書院, pp.86-98
- 古川裕佳(2007) 「<戦場>の<姦通>-林芙美子『下町』-」『国文学論考』(43)都留文科大学國語國文學會, pp.38-51
- 與那覇恵子(1998) 「『下町』-“運の悪い人”の共生空間-」『国文学解釈と鑑賞』63(2) 至文堂, pp.137-140
- 和田芳恵(1968) 「感想」『日本短篇文學全集』39 筑摩書房, pp.273-277
- 渡辺澄子(2000) 「戦争と女性」『戦時下の文学』インパクト出版社, p.119
- \_\_\_\_\_ (2000) 「戦時下の女性文學-女自らが問う戦争責任-大東文化大學人文科學研究所主催シンポジウムと講演」大東文化大學人文科學研究所, pp.55-66

---

논문투고일 : 2012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

---

---

 < 要 旨 >
 

---

##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다운타운(下町)<sup>ダウンタウン</sup>』론 - 일본의 전후(戰後) 결혼생활 변화와 여성의 자립 -

『다운타운(下町)』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여성의 결혼생활과 자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 주인공 리요(りよ:30세)는 6년 전 출정(出征)한 남편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살기위해 아들 류키치(留吉:8세)를 데리고 도쿄로 와서 행상을 시작한다. 이때 추위에 떠는 리요를 감싸주며 위로해준 사람은 시베리아 전장(戰場)에서 돌아왔을 때 부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려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쓰루이시 요시오(鶴石芳雄:29세)이다. 쓰루이시는 리요의 곤란한 사정을 알고 류키치와 함께 아사쿠사 구경을 시켜주기로 한다. 그러나 돌아 올 때 짙은 비가 너무 많이 와 여관에 머물게 된다. 이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리요와 쓰루이시의 만남을 통해, 전쟁터에 나간 복원병이 돌아오면 자신의 부인은 다른 남자와 생활하고 있고, 그 복원병은 다시 홀로 남겨진 남의 부인을 취하는 악순환의 결혼생활이 그려져 있다. 특히, 이렇게 파괴되어 버리는 결혼생활에서 힘들어 하는 여성의 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미코는 리요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쓰루이시를 이틀 만에 돌연사(突然死) 시키면서까지, 리요가 쓰루이시의 도움 없이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여성 자립의 강한 의지를 도쿄의 ‘서민동네’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다.

### A Study on Fumiko Hayashi's "Downtown"

#### - The Life Phase and the Independence of Women in the Post-War Japan -

This study explores the marriage life of the woman who failed as a woman after the war in "Downtown". The heroine Riyo, aged 30, went to Tokyo with her son, Tomekichi, aged 8 and started peddling hawking when she realized that her husband did not come back alive when he went to war 6 years ago. She encountered Yoshio Tsuruishi, aged 29, who came back from the war and found that his former wife had already married another man while he was sent to Siberia. Yoshio saw the life of Riyo was even more difficult than his own and decided to take her and her son, Tomekichi to Asakusa. However, on their way back from the place, they had a heavy rain and stayed in a ryokan. In the one night stay, they had a serious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Riyo and Tsuruichi illuminates the negative circulation of married lives, which many husbands found out the fact that their wives had already married other men while they were away from home and tried to marry other women instead. Especially, this novel emphasizes the agony of women who were in the destructed married lives.

In addition to this, after 2 days, Fumiko suddenly let Tsuruishi die after he promised Riyo to provide a financial support. The author drew her strong will of women's independence into the "down town" as Riyo faced a difficult situation and had to solve it without Tsuruishi's support.